
기획논문

중국의 서학, 유럽의 중국학

- 17세기 중국에 파견된 예수회 선교사들의
초기 번역과 문자 이해를 중심으로 -

16세기말에서 17,8세기까지 중국 사유와 유럽 사유의 만남은 유럽에서 중세적 사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일련의 혁명적 변화들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르네상스의 인문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중세 기독교적 교의를 확장시키려는 예수회 선교사들의 중국에서의 활동과 그에 관한 보고서는 유럽의 지성계를 강하게 진동시켰다. 중국이야말로 그들에게 근본적인 의미에서 가치체계와 신념이 전혀 다른 ‘사유의 신대륙’(terra incognita)이었다.

‘사유의 신대륙’에 대한 예수회 선교사들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정복이 아닌 적응이었고 엘리트 지식인 사회를 우선적인 포교 대상으로 삼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선교였다. 그들과의 소통을 위해 예수회 선교사들은 중국어와 문자를 익히고 한발 더 나아가 중국의 문화와 학술, 종교,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 그들에게 있어 이 경이로운 신대륙을 구성하고 지탱하는 실질적인 힘으로 인식되었던 유학 혹은 유교는 반기독교적 이단이 아니라 화해와 융합이 가능한 보편적 인문 정신을 담고 있는 수준 높은 철학 종교 담론이었다.

중국이라는 ‘사유의 신대륙’에 대한 이 같은 적응주의적 이해와 접근 방식은 그들이 중국에서 최우선의 사명으로 여겼던 기독교의 선교 문제를

뿐만이 아니라, 두 개의 서로 다른 사유 체계를 접합시키려는 문명 교류자로서의 역할도 하게 했는데, 이로부터 마테오리치와 바뇨니, 쿠플레 등을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이 유럽의 사유를 중국에 소개하고 중국의 사유를 유럽에 소개하는 실질적인 문헌 작업에 몰입하게 되었다.

이번 특집 논문은 초창기 예수회 선교사들 중 문명 교류라는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문헌업적을 남긴 마테오리치, 바뇨니, 쿠플레의 저작을 중심으로 이들이 보여준 초기 번역의 성과와 한계를 탐색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유럽인으로서, 기독교 사제로서 이들이 읽어낸 중국 사유, 중국 문명의 특징과 함의가 무엇이었으며 그 같은 번역과 해석의 결과로 출판된 텍스트들이 실제로 중국에서 혹은 유럽에서 어떻게 다시 읽히고 수용되었는지 살펴보는 일은 근대 이전 동서문명 교류의 성격과 의미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구명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첫 번째 논문인 염정삼의 「서양의 기억술과 중국문자의 상형성-『서국기법』(西國記法)의 작상론(作象論)-」은 서양의 기억술을 한자 이해에 접목시킨 마테오리치의 『서국기법』을 통해, 그가 제시한 한자 기억의 주요한 방법론인 작상론이 중국 본연의 상형론 및 형성론과 비교했을 때 어떤 문자 이해 상의 왜곡이나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상이한 두 전통의 문명 혹은 사유가 만났을 때 생겨나는 ‘오해’와 ‘이해’ 사이의 갈래와 층차를 보여준 글이다. 염정삼에 의하면, 『서국기법』은 선교의 목적에서도 중국문자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서도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실패작이다. 하지만 그 같은 오해와 이해의 혼재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사유를 결합하고자 한 마테오리치의 ‘선험’ 의도는 그 자신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동서 문명의 연결 고리, 다시 말해 유럽의 기억술이 가지는 시각성과 중국 문자가 지니는 상형성 사이에 존재하는 보다 더 본원적인 관련성을 포착하거나 혹은 중국어에 대한 근대 문법의 정립과 같은 또 다른 영역의 성과를 견인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이 글

의 결론적 관점이다.

두 번째 논문인 김남시의 「기억 이미지로서의 중국 문자, 마테오리치의 『서국기법』(西國記法)」은 전통적인 서양 기억술의 구조와 원리가 『서국기법』의 체계와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한 것으로, 염정삼의 글이 주로 서양 기억술이 적용된 한자 이해의 실질을 밝힌 것이라면, 김남시의 글은 그 같은 이해의 결과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김남시에 의하면, 『서국기법』의 실패는 유럽의 기억술이 전제하고 있는 시각적·인지적 학습 방법이 중국의 전통적 학습 방법과 달랐고, 한자에 대한 지나친 의미론적 파악이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후 유럽에서 이 같은 『서국기법』식 한자 분석이 보다 확산되고 강화되었다는 점인데, 이는 서구 담론 내에서 중국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전유하는 데 이 같은 분석틀이 매우 유용한 근거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마테오리치의 ‘선한’ 의도는 문명의 쌍방적 교류가 아닌 일방적 시각의 고착화로 전화된다. ‘오해’가 아닌 ‘이해’의 충위는 또 다른 문명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지만 ‘이해’가 아닌 ‘오해’의 충위는 일방적 시각의 해석을 고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 논문인 안재원의 「쿠플레의 『역경』에 대한 이해 방식과 그 특성에 대하여: 『역경』의 “겸”(謙)괘의 라틴어 번역문을 중심으로」는 쿠플레의 라틴어 저작인 『중국의 철학자 공자 혹은 중국의 학문』(*Confucius Sinarum Philosophus sive Scientia Sinensis*)에 수록된 『역경』 ‘겸’괘 번역의 분석을 통해 쿠플레의 『역경』 이해가 서양의 계몽군주 담론과 연결되었음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안재원에 의하면, 쿠플레는 『대학』의 수기치인(修己治人) 이론 체계를 『주역』으로 끌고 와서 치자의 내러티브를 만들고, 그 내러티브의 절정에 ‘사람됨’(humanitas)으로 번역한 ‘겸’(謙)괘를 놓음으로써 루이 14세가 그리스도에 순종하고 그리스도교를 수호하는 성인 군주가 되기를 염원했다는 것이다. 안재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같

은 메시지의 내용과 형식의 설득구조가 유럽 전통의 그것이 아니라 중국 전통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에 따르면 쿠플레는 유럽의 현실 문제에 관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의 경학 담론에서 모티브를 얻고 그것을 이용한 셈이다. 이는 단순히 선교의 적응주의를 넘어 당시 유럽의 계몽군주 전통과 절대주의 왕정의 확립 과정에서 쿠플레의 번역이 매우 중요한 참조 자료가 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 박지현의 「알폰소 바노니(高一志)의 『서학제가』(西學齊家) 「제부부」(齊夫婦)권: 선교의 한 방식으로서의 부부 윤리」는 예수회 선교사들의 적응주의, 즉 유교와 기독교의 융합이라는 문명 교류적 선교 전략과 실천 속에서 부부 윤리의 문제를 선교의 한 방식으로 담론화했을 때 어떤 방향의 융합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글이다. 박지현에 의하면, 알폰소 바노니의 『서학제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과 『대학(大學)』의 주요 이념인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조응을 바탕으로 그 기본 구도와 세부 내용이 정해진 책인데, 이 중 중국의 축첩제도를 정조준하고 있는 「제부부」 권은 신이 부여한 당위로서 한 남편 한 아내(一夫一婦) 가정의 신성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독교적 구원에 이르기 위해 부정되고 극복될 수밖에 없는 결혼의 세속성을 함께 부각시키고 있다. 「제부부」 권의 이 같은 모순성은 이를 접하는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내용의 선택적 취사의 가능성을 열어두게 하는 것인데, 이는 애초에 바노니가 의도했던 선교의 방향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텍스트상의 문화 융합은 선교의 목적과 결합됐을 때 다소 균열적인 양상을 드러내며 그것의 수용에 있어서도 일관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박 지 현